

“市民중심 주민자치 펼쳐겠다”

시장원 포천시장은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밝혀

시장원 포천시장은 7월4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7개 추진사업, 6대 중앙부처 협의사업, 2대 지역현안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추진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공항건설은 국방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공직자들이 시민중심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기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공직사회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 신도시 개발에 대해 서 시장은 행위제한 면적을 177만평으로 축소하고 나

머지 770만평은 7월까지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 시민대표, 전문가 대표, 실무 공무원을 주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원고충처리센터를 개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홀·포천·선단·군내 지역은 교육과 문화와 복지가 살아 숨쉬는 주거지역으로, 신북·장수·영중 지역은 대단위 농·축산 신 활력사업의 중심지로, 관인·영북·이동·일동·화현 지역은 체험 중심의 관광·휴양레저 문화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오랜 세월동안 각계각층의 시민여러분과 함께 해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소신을 가진 시장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더욱 겸손하



시장원 포천시장이 7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중심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 시민을 섬기는 시민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 입주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기계화사단으로 개편을 추진중인 8사단 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래지향적 첨단전투력 강화, 사이버전, 속도전 등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는 오는 2011년까지 8사단을 보병사단에서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개편되면 전차나 장갑차로 무장하게 되고 군 간부가 3배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지역발전의 촉매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리 주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오해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장구를 단일화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사단측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기계화보병사단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재산권 보장 등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방위태세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 위협 안된다’ 시위

군부대, 기계화보병사단 개편으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주민 200여명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인근 지역 전차부대 입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7월7일 오전10시부터 포천시 일동면 동부교회 앞에서 일동면사무소까지 가두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상여행렬을 준비하여 목숨을 걸고 전차부대 입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양운서 탱크주둔결사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90년 당시 37번 국도 영중-일동간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군부대의 비협조로 동네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돼 주민들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8사단의 기계화사단 개편계획은 길명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시키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일동면사무소에 집결한 길명리주민들이 전차부대 입주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히 양 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주민설명회에서 군부대 측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으로 주민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전차부대 입주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사단 앞으로 옮겨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일동면 길명리 447번지 일대의 도로가 전차부대 입주로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 전차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㉓

공직신분 망각한 불미스러운 사례 자주 발생

징계 받은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방대책 수립해야

포천시 공무원들이 갈수록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포천시가 포천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조치인원이 2006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민원처리 지연, 공직기강 해이, 직무태만과 음주운전 사례 등 공직신분을 망각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포천시의회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의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포천시 2007년도 징계처분 현황은 정직 1건, 감봉1건, 견책 4건, 불문경고 6건, 훈계 167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7년1월에는 도로점용허가 부적정, 포천시 아트밸리조성사업 설계용역 PQ업 무추진 부적정, 건축허가 부적정, 공무원징계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유기동물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법인모지 관리소홀, 민원처리 지연, 복무규정 위반, 민원응대 소홀, 공직기강 해이, 직원 복무교육 소홀, 취약지역 보건진료업무 소홀 등으로 29명이 훈계, 불문경고 등을 받았다.

2007년2월에는 공직기강 해이로 2명이 훈계를 받았으며 3월에는 농지전용허가 미착공지 보고 누락, 산물 수수, 지적전산교육 미입고 등 5명이 훈계를 받기도 했다.

4월에는 하천 및 공유수면 등 점사용허가시 납세확인 소홀등, 농지 불법단속 소홀 등, 2005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화물자동차운수업 허가기준 미달,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철거 소홀,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005년도 경로당 운영비 등(보조금) 정산감사 소홀, 포천광역버스터미널 준공후 미사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행정처분 등 조치 소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등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 관리 소홀 등으로 20명이 훈계를 받았다.

5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1명, 친절 공정의 의무 소홀로 훈계 1명, 6월에는 환경단체 지도감독 소홀, 제증명 수수료 수입금 지연 불입,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등, 종합행정시스템 민원처리 결과 입력·관리 소홀,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등, 제증명 수수료 수입금 지연불입,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소홀, 공장설립등의 신설 불승인 부적정, 공공재산 불법행위 조치 소홀, 취약지역 보건진료 업무 소홀, 금화봉 일대 용역 준공 소홀, 사회복지시설 관리소홀, 옥외광고물(군사시설 가림간판)표시 허가 부적정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 식품점객원 영입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등으로 포천시 공무원의 빼어난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히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지적사항 미이행 및 민원사무처리 지연, 농지 불법전용행위 단속 소홀,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소규모공사 설계변경 미조치, 제증명 수수료 수입금 지연불입, 국유재산 불법행위 조치 소홀, 소규모공사 무추진 등 보건행정업무 소홀, 종합행정시스템 민원처리 결과 입력관리 소홀, 정신보건사업 교육감사로 지급 부적정, 방문보건사업 관리 소홀 등 25명이 훈계를 받았다.

8월에는 산지전용허가 부적정으로 불문경고 1명, 고충민원 정보보호 위반으로 1명이 훈계, 당직 명령 불이행, 상급자 명령 불응으로 감봉1월을 받았으며 9월에는 중식시간 미준수, 아트밸리 추진 부적정, 복무기강 해이, 취약지역 보건진료 업무 소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소홀, 수의계약 부적정, 사업선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10명이 훈계를 받았다.

10월에는 취득세신고 처리 소홀, 업무연찬 소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의 사업장 관리 소홀, 보안점검 등 개인별 직무관리 해이, 출근시간 미준수, 복무 기강 해이, 업무처리 소홀, 농지관리 업무 소홀 등의 이유로 46명이 훈계를 받았다. 11월에는 진정 민원 처리 업무 소홀로 훈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정직 1명, 산물 수수로 견책을 받았고 12월에는 공장설립 사후관리 소홀,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전용부담금 부과 소홀, 산지전용 사후관리 및 전용부담금 부과 소홀, 건축허가지 관리 소홀, 금화봉 일대 용역 준공 소홀,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옥외광고물(군사시설 가림간판) 표시 불허가 부적정 처리, 옥외광고물(군사시설 가림간판) 표시 고시내용 부적정으로 훈계 13명,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책 1명 등이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버린 모습이 다량이다. 특히 외부감사로부터 지적 받아 징계처분된 것은 포천시 아트밸리조성사업 설계용역PQ업무추진 부적정, 공무원징계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유기동물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법인모지 관리소홀, 민원처리 지연, 복무규정 위반, 민원응대 소홀, 공직기강 해이, 직원 복무교육 소홀, 취약지역 보건진료업무 소홀 등으로 17명이 훈계를 받았고,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진료소 관리 부적정으로 견책, 공장설립등의 신설 불승인 부적정으로 2명이 불문경고를 받았다.

7월에는 상수도 공사 설계변경시 미조치, 2005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2005년도 종합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의회
GYEONGGI PROVINCIAL COUNCIL

www.ggc.go.kr

1,100만 도민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의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활동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의회
- 의장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전개 등
- 전국 최대규모 의회 운영